

II. 주요 경제 현안

1.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결산

□ 주요 내용

IMF의 역할, 세계 경기 회복, 국제 금융위기 해법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, 선진국의 지속적 경제 발전 필요성, 일본 경제의 회생 방안 및 기존 국제 금융체제의 보완 필요성 등 3개 합의 사항을 발표하였음

- 99년 세계경제포럼(WEF: World Economic Forum)의 대주제

- 금년 총회에서는 아시아, 중남미 및 러시아 등 개도국을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
에 맞춰 “책임있는 세계화”라는 대주제가 상정되었음

- 주요 논의 사항

① IMF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 : 이해 당사자에 따라 상이

- (외환위기 당사국) 개도국들은 IMF가 외환위기국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긴축
재정 및 고금리 정책을 강요함으로써 금융위기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함
- (투자자) 조지 소로스는 최종대부자(lender of last resort)로서의 기능을 제고하
는 방향으로 IMF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함
- (국제기구) 반면 피셔 IMF 부총재는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한국과 태국의 사
례를 들어 IMF 처방이 단기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함

② 세계 경기에 대한 논의 : 일본 경제 회복의 필요성 강조

- (전망) 버그스텐 미국경제연구소(IEE) 소장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경기 순
환상의 분석을 토대로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전망했음
- (과제) 따라서 일본 경제 회복이 세계 경제의 동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
하다는 의견이 강했는데, 특히 루빈 美재무 장관은 일본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
는 재정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인 경제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

③ 국제 금융위기 해결에 대한 논의 : 자본 통제 필요성에 대한 상충된 견해

- (자본 통제 여부) 독일의 슈뢰더 총리 및 개도국 대표들은 단기자본거래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, 루빈 美재무 장관은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지연 및 성장 감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
- (국제 금융 시스템) 한편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투명성, 정보 공개성 및 감독 기능 강화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음
- (환율 정책)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달러화·유로화·엔화간의 목표 환율제 도입은 환 투기꾼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옴

④ 아시아 신흥국 경제 회복에 대한 논의

- (투자의 불균형 해소) 공장과 기계 등 하드웨어에 집중된 투자가 연구 개발 및 행정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에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
- (기업 부문의 투명성 확보)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,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의 개선 등 기업 부문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됨

⑤ 세계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

- (세계화의 기여) 기업 경영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, 교육 및 富의 수준 제고, 민주적 체제 확립 등 세계화가 기여하는 바는 지대하다는 데 의견 일치
- (세계화에 대한 도전)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각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만 취급되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
- (세계화의 방향) 따라서 기업은 각각의 의사 결정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전세계에서 동일한 노동, 환경 및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고, 각국 정부는 현존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

- 합의 사항

- ▷선진국들의 지속적 경제 발전 없이는 개도국의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▷일본은 감세와 금융체제 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 회생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고 ▷현재의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기존 체제의 대폭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3개 합의 사항을 발표함

□ 평가

세계 경제 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, 구체적 실천 과제가 합의되지 않았고 국제 금융위기 해법에 대해 견해차가 상존한 것이 한계점임

- 긍정적 평가

-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계 경제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음

- 부정적 평가

- 범세계적 중앙은행의 설립, 국제 투기자본의 감시 및 통제, 지역 共用 통화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인 국제 금융위기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
- 국제 금융위기의 해법 및 IMF의 역할론 등에 대해서 이해 당사국간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임으로써 향후 국제 금융체제의 개편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임

□ 시사점

현재의 국제금융체제가 유지되면 자본 통제 및 목표 환율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며, 국제금융감독기구 등의 설립을 통해 기존의 자본 자유화 정책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부각될 전망이다

- 국제 금융위기 해법의 방향

- IMF 역할론에 대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재편보다는 현 체제의 보완에 무게가 실림으로써 국제 금융위기의 조정자 역할을 해온 IMF의 기본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
- 따라서 당분간 자본 통제 또는 목표 환율제 도입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자본 유출입 및 환율 움직임의 자유화를 유지하면서 각국의 금융 시스템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시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
- 다만 각국의 금융 기능을 동시에 감독할 수 있는 일종의 “국제금융감독기구(global regulators)”의 설립 논의가 부각될 가능성은 있음

(김 재 칠 jckim@hri.co.kr ☎724-4022)